

‘한 과목 두 교사’ 순회·겸임교사 학부모 불만

“시험문제 불균형·피로 누적에 수업 질 저하로 학생들만 피해”...전남 초·중·고 310명 등 861명 달해

전남 지역에서 특정 학교에 소속을 두면서 1개교 이상의 학교를 순회하며 학생을 가르치는 순회·겸임교사에 대한 학부모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예컨대, 동일 교과목인데도 같은 학교의 2개 학급을 교사 2명이 각각 따로 맡아 가르치는 탓에 시험을 치르는 학생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교사들이 먼 거리에 있는 학교를 오가기 때문에 피로가 누적돼 수업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30일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현재 도내 순회·겸임교사 수는 초등학교(310명)·중학교(432명)·고등학교(119명) 등 모두 861명이다. 지난 2015년과 2016년엔

각각 861명·855명이었다.

순회·겸임교사는 학교 또는 교과 간 탄력적인 교원 배치로 교원 간의 수업시수 격차를 완화하고 공·사립학교 간 순회교사를 활성화해 과목 불균형과 과잉교사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일부 학부모들은 순회·겸임교사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중국어·미술·음악·상업 등 한 과목을 소속 학교가 다른 두 교사가 담당하면서도 시험문제는 공동출제하는 방식 때문에 학생들에게 유·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정 교사의 문제가 많이 출제되면 이 교사에게 배우지 않은 학생들이 시험에서 고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중학교 학부모 A씨는 “순회·겸임교사 제도를 운영하는 뜻은 잘 알겠지만 결국 피해는 학생들이 볼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소속 학교에 담당 교사를 두고 학생들을 가르치는 게 교육적인 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교사 정원이 줄어들수록 부족한 수업시수를 매우기 위한 순회·겸임교사 수는 늘어난 수밖에 없다는 점도 문제다.

또 순회·겸임교사 중 일부는 자신이 소속된 학교를 포함해 3개 학교를 순회하며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수업의 질적 하락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교사들의 피로 누적 때문이다.

심지어 소속 학교에서 교육활동이 제한

되고 출·퇴근이 불편한 점 등을 이유로 정규직 교사들이 기피하면서 기간제 교사들이 순회·겸임교사를 맡는 경우가 많다.

학생 자신이 다니는 소속 학교 교사에게 배우는 것보다 다른 학교 교사에게 수업을 받는 게 여러 측면에서 손해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전남도교육청 관계자는 “각 교사별로 수업시수가 넘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순회·겸임교사제도를 활용해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 있다”며 “시험의 경우 대부분 비슷한 시기에 시험을 치르는 만큼(순회·겸임교사가 과목을 맡는 경우) 같은 날 동시에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수능총괄 교육과정평가원에 성기선 가톨릭대 교수 임명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출제하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 원장에 성기선(53) 경기도교육연구원 원장 겸 가톨릭대 교수가 임명됐다.

평가원은 국무총리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30일 이사회를 열어 제10대 원장으로 성 원장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서울대 국어교육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에서 교육학 석·박사 학위를 받은 성 원장은 중등임용고사 출제위원 및 기획위원, 사단법인 한국교육연구네트워크 정책연구소장, 경기도중앙교육연구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현재 가톨릭대학교 교직과 교수로 재임 중이다.

평가원장의 임기는 3년이며 매년 경영성과, 연구 실적 등에 대해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평가를 받는다.



주민주치센터 작품 전시 제12회 북구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경연대회 작품전시회가 30일 북구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가운데 송광은 북구청장과 주민들이 18개 등에서 출품한 26개 프로그램 등 출품작을 둘러보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도교육행정협의회 개최

전남도와 전남도교육청은 30일 도교육청 비즈니스실에서 교육현안 해결과 지역 사회 상생 발전을 위한 전남도교육행정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안건은 자유학기제·진로체험지원센터 지원과 무상급식 제도 개선방안 마련 등 5건이다.

양 기관은 학생들의 진로체험처 발굴을 위해 도내 공공기관과 기업 등에 대한 정보를 공유기로 한 뒤 각 시·군 진로체험지원센터의 예산 지원 등을 위해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특히 투명하고 효율적인 무상급식 제도 확립차원에서 공동 무상급식 제도개선 TF팀을 구성,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조선대에 임시이사 파견...정상화 계기 마련

기존 이사회 법적 대응 반발

이사회 구성 갈등으로 장기간 대학 운영에 파행을 겪고 있는 조선대에 임시이사가 파견된다.

하지만 기존 이사회가 절차적 정당성을 내세워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혀 논란이 지속될 전망이다.

교육부 산하 사학분쟁조정위원회(사분위)는 30일 회의를 열고 교육부가 상정한 조선대 임시이사 파견안을 통고시켰다.

이날 교육부는 임시이사 9명의 후보로 두 배수를 추천했으나 사분위는 지역 여론을 수렴한 후 차기 회의에서 임시 이사

명단을 확정, 발표하기로 했다.

조선대가 임시이사 체제로 회귀한 것은 7년 만이다. 조선대는 대학 민주화투쟁을 통해 구 경영진이 1988년 물러난 뒤 22년간 임시이사 체제로 운영되다 2010년에 정이사 체제로 전환했다.

하지만 7년 동안 1~2기 이사회에 구 경영진 측이 참여하면서 갈등이 끊이지 않았으나 올해 2월 2기 이사회 임기가 만료됐으나 최근까지 3기 이사회를 구성하지 못한 채 결국 임시이사 체제로 전환했다.

대학 구성원들은 이사회에서 구 경영진을 배제시켜야 한다며 교육부에 임시이사 파견을 요구해 왔다. 구성원들은 임시이

사가 파견되면 대학 정관을 개정해 국민공익형 이사회를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가 대학 구성원의 손을 들어주고 사분위도 임시이사 파견으로 결정하자 기존 2기 이사회가 반발하고 있다.

강현욱 2기 이사회 이사는 “교육부가 7개월 동안 직무를 해태하고 절차를 생략한 채 임시이사를 파견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강 이사는 임시이사 선임 효력정지가 처분과 교육부 담당자 직무유기 형사고발, 개방이사 선임대상자 추천 부작위 위법확인 소송 등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오늘의 날씨

해돋이 06:53 해질 17:39
달출 15:29 달몰 02:14

옷 따뜻하게 입으세요
낮과 밤의 기온차가 매우 크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하세요.

◇지역별 날씨(℃)

광주	맑음	4/18	보성	맑음	0/17
목포	맑음	0/18	순천	맑음	5/19
여수	맑음	8/17	영광	맑음	3/17
나주	맑음	0/18	진도	맑음	4/15
완도	맑음	7/18	진주	맑음	3/17
구례	맑음	1/18	군산	맑음	4/17
강진	맑음	2/19	남원	맑음	0/17
해남	맑음	0/18	축산도	맑음	11/16
장성	맑음	1/17			

◇바다 날씨

		오전	오후		
		풍향	파고(m)	풍향	파고(m)
서해	앞바다	북~서북	0.5~1.5	남서~서	0.5
남부	면바다	서~북서	1.0~2.0	남서~서	0.5~1.0
남해	앞바다	북~북서	0.5	서~북서	0.5
서부	면바다(동)	북~북서	0.5~1.5	서~북서	0.5~1.0
남부	면바다(서)	북~북서	1.0~2.5	서~북서	0.5~1.0

◇생활지수

산불위험	보통
자외선	보통
미세먼지	보통

◇물때

		간조	만조
목포		04:27	10:47
		16:30	23:19
여수		00:17	06:14
		12:05	18:41

◇주간 날씨

11/1(수)	2(목)	3(금)	4(토)	5(일)	6(월)	7(화)
☀	☀	☀	☀	☀	☀	☀
8/19	10/19	10/18	5/16	5/16	6/18	9/20

내년부터 취약계층 의료비 부담 줄어든다

내년부터 저소득 취약계층의 의료비 부담이 지금보다 더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소득하위 계층의 건강보험 본인부담 상한액을 대폭 낮추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내달 14일까지 의견을 받은 뒤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강보험 소득하위 50%의 진료비 연간 본인 부담상한액이 인하된다.

구체적으로 최하위소득인 소득 1분위는 연간 122만원→80만원으로, 소득 2~3분위는 연간 150만원→100만원으

로, 소득 4~5분위는 연간 205만원에서 150만원으로 각각 낮아진다.

의료급여 2종 수급자의 연간 본인 부담상한액도 120만원에서 80만원으로 떨어진다.

다만, 요양병원에서 120일을 초과해 입원한 경우에는 지금의 본인부담상한액이 그대로 유지된다.

2004년 도입된 본인부담상한제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와 더불어 감당하기 어려운 의료비로 가계파탄이나 노후파산에 직면하지 않도록 막는 대표적인 의료비 경감장치다.

전남 저소득층에 유아용 카시트 무료 공급

전남도가 저소득층 가구에 유아용 카시트를 무료로 공급한다.

전남도는 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유아용 카시트 1400개를 무상으로 보급하기로 하고 교통안전공단 호남지역본부에서 신청을 받는다고 30일 밝혔다.

지난해 전남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 5명 가운데 3명이 카시트를 착용하지 않은 사실에 착안한 교통안전 대책의 하나다. 이 사업에는 소방안전 교부세 3억 1500만원이 투입된다.

지난 1일 현재 전남에 주민등록을 두고 배기량 2000cc 미만 승용차를 보유한 6세 미만 자녀를 둔 가정이 지원 대상이

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 계층, 세 자녀 이상을 둔 다자녀 가정에 우선 지원된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6세 미만 어린이를 차량에 탑승시킬 때는 카시트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그러나 국내 카시트 장착률은 33.6%로 다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과 비교해 매우 저조한 실정이라고 전남도는 설명했다.

전남도와 시·군 홈페이지 또는 읍·면·동사무소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해 교통안전공단 호남지역본부(062-606-7617)에 등기우편 또는 팩스로 접수하면 된다.

Aroma Life
www.aroma-life.co.kr

‘건강’과 ‘아름다움’을 모두 갖춘

맞춤형 기능성 속옷의 명가 아로마라이프

아로마라이프 기능성 속옷은 한국, 미국, 일본, 중국 특허를 받은 유니크한 디자인과 일본 도레이社 LYCRA(별단면육각형)사용 및 특수 물질가공(원적외선, 음이온효과)으로 편안한 착용감과 생리적인 불편함을 해결해 주고 건강을 생각한 속옷입니다.

대표전화 1588-2219

KCPBA 2016
Korea Consumer Protection Award

2011
Korea Consumer Protection Award

아모리온
브라+슈트+거들
4개국 특허 3단 일체형 슈트

아모리온 롱바디
브라+슈트+거들+레깅스
4개국 특허 4단 일체형 슈트

아실리 바디슈트
블랙은사 바디슈트의
은사 레이스 품평회 1등

비비드 아모르
러닝+팬츠
2단 일체형 남성용 슈트